

#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b>2023. 2. 24.(금) 14:00부터 보도 가능합니다</b>
문의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a href="mailto:snuvr2@snu.ac.kr">snuvr2@snu.ac.kr</a> 행사진행: 총무과 등

배포일시: 2023. 2. 24.(금) 11:00

## 서울대, 제77회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 서울대학교(총장 유희림)는 제77회 전기 학위수여식을 2023년 2월 24일(금)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154명, 석사 1,708명, 박사 775명 총 4,637명에게 각각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한다.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 그동안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위수여식이 진행된 바 있으며,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것은 지난해 8월(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에 이어 두번째이다.

□ 유희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새로운 출발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을 통해 ‘자기 삶의 개척자’가 되고, 개성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거침없이 앞세우는 ‘용기있는 도전자’가 될 것을”을 강조했다. 이어 유총장은 “지식과 능력을 주변과 나눔으로써 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리더, 존경받는 지성인이 서울대인이었다는 자부심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사: 별첨1>

□ 특히,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이 축사 연사로 초청되어 미래를 향한 준비와 흔들리지 않은

목표의식 등 격려와 당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학위수여식사: 별첨3>

□ 주요 식순

-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 졸업생 대표 인사, 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 학위수여, 상장 수여 등

**【첨부1】 제77회 전기 학위수여식사**

2022년 8월 감당할 수 없는 폭우로 학교 전체가 순식간에 하천으로 변해 버린 날, 중앙도서관 역시 밀려든 빗물에 귀중한 수천 권의 장서들이 젖고 훼손되는 참담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복구가 시작되어 안타까운 도서관의 소식이 알려지자 260명의 학생이 도서관으로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 젖은 책 한 장 한 장을 손으로 펴고 말려 서고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정말 몽클한 감동의 모습들 아십니까? 우리 서울대 학생들, 공부만 잘하지 자기 생각만 한다는 오해도 없지 않은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이겨내는 실천을 보여주는 바로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동스러운 우리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빛나는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성취와 영광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결실인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신 가족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당당히 정문을 나설 수 있도록 강의실과 연구실, 행정실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교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우수한 학생들의 빛나는 성취에 큰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 새로운 시대의 새 출발을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작금의 현실이 ‘시대적 대전환기’ 라는 의미입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팬데믹에 전 세계는 혼돈 속에 움

츠러들었고, 험난한 고비를 넘기며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진화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패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전쟁과 재난은 우리가 알던 국제적 관계를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한의 한파와 폭우가 반복되는 세계적 기후변화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혼란과 두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전환기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일컬어 MZ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름이야 어찌 되었건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세대임이 분명합니다. 타인이 정해 놓은 잣대와 의미 없는 세대 담론 자체를 거부하고 자신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자각을 더 중시하는 세대, 불의와 공정의 윤리적 가치에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제 몸처럼 다루며 소셜 미디어로 세상과 소통하는, 디지털 전환기에 최적화된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난 3년의 팬데믹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독한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평범한 삶과 일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하였고,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성찰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해주며, 인생의 도약을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러한 성찰을 통해 ‘자기 삶의 개척자’가 되십시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는 주어진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주도적인 인재입니다.

세상은 점차 더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며 그 속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르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난관에 부딪히고,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어찌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는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자유로운 학문공동체에서 그동안 배우고 실천하셨던 대로 누구보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탐색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쉽게 이루기 힘든 혁신은 바로 창의성의 발현입니다. 인간만이 지닌 고유의 능력, 즉 생각하고 상상하고 탐구하며 구현해내는 그 과정을 온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졸업식에 아주 귀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작년 6월, 나로우주센터에서 있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감격스러운 이륙을 기억하시는지요?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발사 성공을 기원했고 목표 궤도에 도달한 순간 누구 할 것 없이 환호하며 감동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이 누리호 발사를 진두지휘하고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정환 본부장님이십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결코 운 좋게 맞이한 시대적 행운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은 노력의 결실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위대한 도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용기 있는 도전자’가 되십시오. 자신의 개성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거침없이 앞세우는 우리 졸업생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챗봇 인공지능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득 우리 서울대생들이 졸업 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이 궁금해졌습니다. 서울대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로 좋은 직장을 구하라거나 개인의 호기심과 열정을 쏟아 부을 분야를 찾아가라는 것과 같은 답을 주더군요. 대부분 누구나 예상할만한 상투적인 대답들이었지만 그 중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에서 갖고 남은 지식과 여러분의 시간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혼자만의 외로운 레이스가 아닌, 여럿이 함께해야 하는 공동 달리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공지능이 던진 이 조언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 이 레이스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유를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훌륭한 지식과 능력을 주변과 나눔으로써 이 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리더, 존경받는 지성인이 서울대인이었다는 자부심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멈춤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길었던 ‘면역의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씩씩하게 이겨낸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은 가장 강력한 ‘삶의 백신’이 되어, 여러분을 더욱 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행여 겪었을지 모르는 고단함과 안타까움의 기억은 모두 관악산 기슭에 훌훌 털어버리고, 즐거웠던 추억과 뜨거운 열정만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교문을 나서길 바랍니다. 나아가는 그 길이 외롭거나 힘들 때면 잠시 멈춰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모교 서울대는 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눈부시게 빛날 여러분, 다시 한 번 졸업을 축하하며 앞날의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 총장 유 흥 립

## 【첨부2】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사랑하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 4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예로운 학사와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총동창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44만 서울대 동문을 대표해 환영합니다. 서울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홍림 총장님을 비롯해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피 주신 교직원 여러분, 작고 어린 아이가 어엿한 사회인이 되기까지 정성으로 키워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서울대인은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아닌,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재능에 끈기와 노력을 더해 여러분은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학이 제공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받았고, 훌륭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진출할 사회에선 수많은 선배 동문들이 앞서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복’이 꼭 나 혼자 차지하는 요행과 행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몫을 나눠주고, 돌려주는 행위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복을 기원하는 ‘축복’이란 말이 있고, 불교에서 선행을 베풀 때 ‘복을 짓는다’고 하듯, 복에는 이타심과 전과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공헌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졸업을 기해 그동안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대학에서 익힌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서 이웃과 사회에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합니다. 내가 받은 복은 나만의 것이 아님을 항상 생각하길 바랍니다. 특히 서울대인에겐 남들보다 2% 더 많을 때 3%, 10%를 돌려줄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총동창회 또한 친목 단체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나누고 베푸는 모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대지진으로 아픔을 겪는 튀르키예에 구호 활동을 돕고자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인은 똑똑하긴 한데, 더불어 함께 살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선입견을 불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봇에 ‘동창회는 무엇인가’ 물었더니 ‘오래된 기억을 새로운 경험과 연결해 주는 곳’이라고 답했습니다. 동창회장으로서 제가 지향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과거가 그리울 때 와서 쉬고, 앞날이 막막할 때도 언제든 동창회에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사회 공헌에 전문인 선배는 물론, 창업가 동문, 해외 각지에서 활약하는 동문 선배들이 동창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서로를 도와주려 하는 선배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게 될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첨부3】 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개발을 맡고 있는 고정환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과대학 항공공학과에서 1989년에 학사, 1991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30여 년 만에 모교 졸업식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우선 오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 받으시는 졸업생 여러분, 수년간의 수학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곁에서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축하 말씀드리며, 공부를 하던 학교를 떠나 다른 일을 하던, 가족의 뒷받침과 지지가 없으면 많이 힘들고 지치는데,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애 많이 쓰셨고, 오늘 많이 자랑스러워하시기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위축된 수학 생활을 겪으셨으리라 생각되고, 비대면 강의와 집합 금지 등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수학 생활이 더욱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룩하신 여러분들의 성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과 큰 성과를 이루신 선후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같이 평범한, 잘난 것 없는 사람이, 수년간의 수학 생활을 마감하는 후배님들의 뜻깊은 자리에서 감히 축하를 드릴 자격이 되는 건지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아마도 최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신 누리호 개발을 이끈 덕분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영광스럽게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되새겨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오늘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불안감으로 가득차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일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의 세상살이 경험 정도로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공우주 전공으로 박사 학위까지 마쳤습니다. 2000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여, 이제 만 23년이 되려고 합니다. 항우연에서는 발사체 개발 업무에 계속 종사해왔고, 앞으로도 퇴직하는 날까지 그렇게 일할 것 같습니다. 2015년 중반까지 저는 평범한 연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누리호 개발사업은 내적으로는 기술개발의 어려움과 조직 구성의 난맥으로 인해 사업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저 자신도 당시 상황을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또한 적지 않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하에 덜컥 사업책임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제 삶을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세상일은 가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책임자 직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는 각 분야의 기술개발은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야만 했고, 하나하나의 작은 조각들을 이어 붙여 마침내 큰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나는 외부의 비아냥에 슬퍼하고 분노했던 적도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소에서 200명이 넘는 연구조직을 이끌며 총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일 매일 고행을 하며 참고 견뎌내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내게 했던 것은 우리가 들인 노력이 결실을 보이는 작은 순간들, 그리고 나중에 많은 분이 저희가 하는 일을 응원해주시고, 결과에 같이 기뻐 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게 누리호는 어떤 의미인가를 물어오기에, 인생사의 회노애락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과정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누리호 사업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 출발 하시는 여러분께 앞으로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몇 가지 중요하게 기억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리호와 같은 대형 시스템 개발은 수많은 인원이 합심해서 일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마 세상에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다반사일 텐데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신뢰가 없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도, 많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으셨을 테고, 그때의 상황들에 대해 혹시 끝없는 후회와 반성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지나간 일에 대한 복기와 반성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는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필수적이니,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일들에 끝없이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리호 개발과 같은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어디선가 무언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론 대수롭지 않은, 하지만 때론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시고, 조금이나마 그에 대해 준비를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사전에 대비를 아주 잘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소한 심적으로,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늘 가상의 대처를 해보시는 습관을 지니시면, 실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많이 당황하지 않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바, 목표하는 바를 잘 세우시고, 어떤 외부의 압박과 방해가 있더라도 그런 생각과 목표를 잘 지켜나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목표와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야 스스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흔들리지 말고 지켜나가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감히 새 출발 하시는 많은 분께 작으나마 삶의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세상살이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린 말씀이니, 너무 무겁지 않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졸업하시는 모든 분께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여러분들과 가족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